

주일설교 시리즈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12/07/2015

과학과 지혜

시편 104

잠언 8:22-36



설교 Rev. Semler

과학과 지혜

과학이 관찰할 수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의 한 방법이며, 또한 이런 방법에 의해 산출된 지식의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라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속에서 갖고 있는 신적인 계시와는 다른 것이거나 그것과 구별되는 어떤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개의 상당히 구별되는 사고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생각을 하고, 실제의 세계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식의 이같은 두 가지 근원은 아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적어도 그 중 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간격을 메꾸기 위한 노력으로, 예컨대, 창세기 1 장과 현대의 우주관 사이의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를 찾으려다 성경의 고대원문들은 현대 과학적 자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대의 다른 청중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며, 전반적으로 두 문헌들은 그 관심과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 이르면, 기독교인들은 과학적인 발견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우리의 견해를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오래동안 고수해 온 성경해석에 대해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 장에 묘사된 6 일간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과 성경 사이에 상호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 이 설교 시리즈 첫 번째에서 언급한 존 폴킹혼의 실례들을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나는 과학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나의 기독교적인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쌍안경적인 시야가 가져다 주는 것이 한쪽으로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보다 나에게 더 많이 보고 이해하도록 해 줍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소박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경 속에 좀 더 과학적인 탐구와 같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경험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격려함으로써 과학과

성경 사이의 연관점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유익한 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 의해 감지되고 탐구되며 요약될 수 있는 세상 속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자료 같은 것 말입니다. 충분히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견고해 질 수 있고 혹독한 경험들 속에서 테스트를 거칠 수 있는 지식의 체계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모든 자료나 대부분의 자료들이 현대 과학의 질문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도 구약의 지혜문학은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세계가 있다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삶들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주로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와 몇몇 시편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저는 윌리엄 브라운의 저서인 창조와 일곱 기둥(The Seven Pillars of Creation)이라는 책을 읽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에 관해 언급하는 성경의 중요한 본문들을 과학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이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합니다. 흥미를 끄는 것은 창세기 1 장과 2 장에 덧붙여 그의 목록에는 욥기 38-41, 시편 104, 잠언 8 장과 전도서 1, 12 장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창조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지혜문학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운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서술하는 방법이 단 한가지 이상이라는 것을 주시한 첫 사람이거나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묘사들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고려해야지, 토론을 창세기에만 국한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지혜문학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과 과학도들에게 우리가 주시하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우리의 한계를 잘 보도록 경고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4

시편 104 는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근거로 봅니다. 고대사회와 친근한 드라마틱한 언어로 지구의 틀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묘사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대부분은 동물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들의 자연스런 행동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10-18 절, 생명의 필수요소인 물에 관해 언급을 함에 있어서 마른 땅이 있도록 해변으로 경계를 삼고 구름에서 나와 동물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식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산골짜기로 내리어 땅이 흡족할 수 있고 동물들에게는 특별한 서식처를 주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부터 자라나는 포도와 곡식에서 얻는 포도주와 빵을 즐기도록 합니다.

- 19-23 절, 낮과 밤의 순환은 어두움은 사냥하는 짐승들을 위하여 낮은 농부들을 위하여 인류가 피조물들과 세상을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 24-26 절, 지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가득하고 바다는 더 많은 물고기로 가득하다는 내용입니다. 인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지만 깊은 곳에는 레바이아단(리워야단)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창조는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목록을 만들어 왔듯이 확실하게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 27-30 절, 생명 주기는 유신론적 용어로 다시 관찰되고 기록되는데, 그것은 자연세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곧 생명과 풍성함, 부족함과 죽음, 재생과 새생명 등과 같은 것입니다.
- 31-35 절, 인류는 나머지 피조물과 같이 단지 이런 엄청난 생명의 대열 중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시편은 제가 “경이로움”으로 표현한 독특한 인류의 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탐구하도록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한 바로 그 **경이로움**입니다. 그 자체가 과학적이지는 않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경이에 찬 감각으로 유사하게 목록 짓습니다. 이것은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학적인 영역에 대한 자각, 종의 분류까지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딱 맞게 조율된 우리의 우주가 지상에서 생산해 내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관찰되고 목록 지어지고 감탄의 대상인 바로 그 생명입니다. 식물들과 나무들과 시냇물, 육상 생물들과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인류는 모두 이 영광스런 체계 속의 일부입니다. 모든 과학자가 그들의 연구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과학이 그들을 찬양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수많은 것들이 믿는 자들을 찬양을 위한 통로의 단계로서 놀람과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24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25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시 104 24-25)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목록들이 경이로움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또한 **경고**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 38-41 장에서 욥은 이와 비슷한 목록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실틈없이 난타하는 수사적 질문들인 통제할 수 없는 창조물인 별들 그 자체와 요동치는 바다와 사나운 폭풍에서부터 황량한 산과 세상의 사막 가운데 처해있는 야생동물에 이르기 까지를 아우르는 것들이 읊 앞에 놓여집니다.

야생 당나귀, 이제는 멸종된 오록 들소, 인정머리 없고 경솔한 타조들, 힘센 말들, 사나운 맹금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이고 길들일 수 없는 짐승들인 하마일지 모르는 베헤모스, 악어일지 모르는 레바이아단(리워야단)이 거의 신화적인 용어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 편에서 그들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뛰어 놀고 욥기 41 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애완 동물 같지만 그들 앞에서 욥과 우리중 누구라도 단순히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은 거칠고 인간이면 누구나 데이빗 아텐보로의 카메라를 통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자연세계) 앞에서는 갑절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편 104 편과 욥기 38-41 장에서 찬미하는 것들을 확연히 파괴할 지 모르고 슬프게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어떤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혹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그 이상으로, 창조의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 지고, 또는 하나님이 이런 야생 동물들까지도 만드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창조주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 장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지혜는 터득되는 어떤 것이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며, 분별력 있는 탐구자에 의해 퍼올려질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그 자체로서 과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과학자들의 가설이고 그들의 과학적인 노력의 경험이고 성과입니다. 세계의 질서를 찾는 끊임없는 인간의 탐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이치의 지속적인 발견으로 답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학적 탐구의 노력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과 우리가 사는 세계 사이에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는 인류-

세계유사원리(anthropic principle)라고 통상 묘사되는 것이 예리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수학과 같은 인간 지성의 산물들이 인간 외부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정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며, 또 우리가 발견해가고 있는 세계는 아주 잘 균형이 이뤄져 있어서 우리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탐구할 줄 아는 생명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계에는 어떤 질서가, 또 어떤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을 위해 읽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잠 1:2-4) 그리고 8장에서는 지혜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36에서 지혜를 가리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치가 존재하도록 우주를 디자인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한 하나님의 첫번째 자녀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질서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주시는 동일한 지혜의 산물입니다. 지혜는 말하기를...

27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28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29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30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31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 8:27-31)

참으로 질서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끝없는 탐색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한계는 또한 경고가 됩니다.

전도서는 부가 주는 특권과 계속해서 '무의미함' 혹은 '무익하다'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는 경험으로 서술되는 쾌락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존재를 고찰하는 지혜서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은 끝없는 순환으로 가득차 있음을 발견하기 위함이고

(전 1:3-8) 또 우리 모두는 전도서 12 장에 시적으로 서술된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에 주시합니다. (전 2:13-16)

우리가 깨달음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기어 갈 때 항상 더 많은 껍질이 나오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 역시 과학적인 시도에서 오는 경험처럼 보입니다. 발견될 것이 항상 더 있고 하나로 통일되는 이론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탐구의 양이 오랜기간 동안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놀라운 세상에 대한 목록을 능가해왔음을 압니다. 마치 과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고대 성서 문학을 단순하게 번역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발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자료로부터 얻는 관찰결과는 과학이 모든 것에 답을 할 수 있고 성경의 통찰을 대체할 지 모른다는 현대의 가정을 수정하도록 도와줍니다.

9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탬 수 있겠는가? 10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11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12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13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전 3:9-13)

이것은 스티븐 웨인버그에게서 인용한 글에서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더욱 이해되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것은 또한 더욱 허무하게 보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경고**입니다. 탐구는 인간의 가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지만,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좌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위안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피조물 됨을 받아들인 채 우리가 가진 것과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깊은 열쇠는 도처에 있습니다. 명확히 잠언 8 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 골로새서 1:12-20 은 유한한 피조물들은 우리 무지의 한계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대한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그들의 창조주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15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9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골 1:15-16, 19-20)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의
놀라움과 지혜의 경고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